

言語活動의 指示적 組織의 形式化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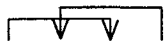
- 韓·佛語의 後置·前置詞의 例를 中心으로* -

朴 亨 達

(언어학과 교수)

‘언어활동(의문 - 대답)의 지시적(拒否적·同形化적) 조직’이란 의문(=Q)=형태(=F)와 대답(=R)=의미(=M)가 서로 얽혀서 전자(=근원적 형태)가 후자(=2근원적 형태)를 ‘거부’ 내지 ‘동형화’하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이 ‘거부적조직’은 한정된 수의 짝 짜인, 동형적으로 분석 가능한 慣用句에 비유될 수 있으며(아래 註 1/2 참조) ‘최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Q(의문)는 ‘근원’, ‘동형화(변형)’ 및 ‘피동형화(생성)’를 포함하는 근원적 ‘관용구’이다; ‘근원’은 (괄호) 없는 “Q”로 표시되고, 동형화(변형)는 (괄호) 안에다 “(Q)”와 같이 표시하여 (괄호) 없는 “Q” 옆에다 “Q(Q)”와 같이 표시한다. 이것이 ‘근원적 짝’이다. 이 근원적 짝 “Q(Q)”의 ‘外部’로서의 ‘피동형화(생성)’는 外部를 표시하는 斜線(/)과 “(괄호)”의 순서를 바꿔서 “/(Q)Q”와 같이 표기한다. 이어서 內部적 짝도 外部적 짝 각각의 첫째와 둘째 項을 각각 逆方向의 화살 표시로 연결시킴으로써 “Q(Q)/(Q)Q”와 같은 그림을 얻는다. 여기서 右화살표시(→)는 ‘동형화(=거부)’, 즉 “₁Q(₁의문)”을 나타내고 左화살표시(←)는 ‘피동형화(=피거부)’ 즉 “₂Q(₂의문)”를 나타낸다. 이것은 (위 左/右화살표시로 연결된 ‘짝 단계’가 그 보다 이전의 內部/外部의 ‘짝 단계’에 비해서 ‘나중단계’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內部와 外部의 각각의 짝의 참된 성격 (또는 位置)을 들어내 준다. 위 그림표기의 內部項과 外部項은 각각 ‘同一性’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관용구’이므로 화살표시로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위 그림표기에 따라서 逆方向 화살표시로 연결시켜서 표기하면


 “Q→(Q)/(Q)←Q”와 같이 된다.

* 이 논문은 1997년 6월 19일 Chambéry-Seyssel(프랑스)에서 개최된 제8차 國際心理·精神力學理論言語學大會 (8^{me} Colloque International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The 8th International Colloquium of Psychomechanics of Language)에서 발표된 논문을 옮긴 것이며, 拙稿(1995): “指示의 力學的 組織에 관하여 - 助詞와 尊待法을 中心으로 -”(人文叢論 34 : pp. 111-156)의 續(=完)篇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이 단계에서의 ‘관용구 Q(의문)’는, 이 단계가 갖는 ‘변형(동형화)의 度’ 때문에, 두 개의 ‘근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동형화(거부)의 짝’ “Q→(Q)”라는 ‘₁근원’과 피동형화(피거부)의 짝 “(Q)←Q”라는 ‘₂근원’가 곧 그것이다.⁰⁾

2°) R(대답)은 ‘근원적 복합적 관용구’로서 Q(의문)와 마찬가지로 ‘근원’, ‘동형화(변형)’ 및 ‘피동형화(생성)’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는 *위에서 말한 ‘₁근원-₂근원’의 짝의 각각의 項을 다음과 같이 역방향의 화살표시로 밑에다 연결시켜서 표시한다.

$$\text{즉 : } \begin{array}{c} \text{“Q} \rightarrow \text{(Q) / (Q) } \leftarrow \text{Q”} \\ \begin{array}{c}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 \text{---} \quad \text{---} \quad \text{---} \\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end{array} \end{array}$$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위에서 말한 Q(의문) 단계에서와 같이 두 개의 ‘근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동형화(거부)의 짝’ “Q(Q)”에 해당하는 “QQ”라는 ‘₁근원’과 ‘피동형화(피거부)의 짝’ “(Q)Q”에 해당하는 “(Q)(Q)”라는 ‘₂근원’가 곧 그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위 “1°)” 단계에 비해 ‘₁근원/₂근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합성단계이므로 ‘동형화’의 짝 “Q(Q)”로서의 ‘₁근원’로써 대표된다.

3°) 끝으로 ‘언어활동의 지시적 조직’은 *위 “1°)=Q· 단순 관용구-2°)=R· 복합관용구’가 지닌 ‘연속적 同一性’에 비하여 ‘불연속적 非同一性’으로 특징지어지는 ‘합성=피동형화’ 단계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성격을 돋보이게 1°의 Q(의문)와 2°의 R(대답)을 합친 그림으로써 표기한다. 즉(‘변형의 度’가 非∅적· 구체적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화살표시의 양쪽에 모두 ‘화살’을 달고 ₁근원-₂근원’의 짝의 각각의 右項 (*위 그림에서의 Q)을 R(대답)으로 바꿔 쓰고 ‘동형화-피동형화’의 度는, ‘동형화’는 (괄호) 없는 “∅”도로, ‘피동형화’는 (괄호) 있는 “(∅)”도로, 이들 근원적 짝의 각각의 화살표시 위에다 표시한다.

$$\text{즉} \quad \begin{array}{c} \begin{array}{c}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 \text{---} \quad \text{---} \quad \text{---} \\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end{array} \\ \text{“Q} \rightarrow \text{(R) / (Q) } \leftarrow \text{R”} \\ \begin{array}{c}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 \text{---} \quad \text{---} \quad \text{---} \\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end{array} \end{array}$$

Q와 R은 각각 ‘언어활동의 근원적, 1理論’로서 그 각각은 ‘2理論’를 대표하는 너<Tu>와 나<Je>를 수반한다. ‘₁이론=근원’과 ‘₂이론=동형화(변형)’는 각각 ‘尊待의 同形적 조직’으로서의 ‘言語’를 수반하는데, 그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원-동형화’ 즉 ‘순수한 의문(Q)-대답(R)’으로서의 ‘먼저’ 단계(예컨대 ∅ 단계)와 ‘피동형화’, 즉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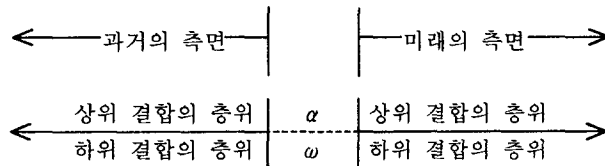
0) ‘기움’식 心理·精神力學論의 영향을 받은 結合적(=非同一적) 「慣用句」의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G. Moignet 1961, “L’Adverbe dans la locution verbale” in *Cahier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NO 5),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pp. 1-36/H. Curat 1982, *La Locution Verbale en Français Modern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대적 의문(Q)-대답(R)'으로서의 '나중' 단계(예컨대 2 \emptyset 단계)가 곧 그것이다.

'언어활동(의문-대답)의 최대의 지시적 (동형화적·거부적)조직 (mécanisme déictique <synaptisant·refusant>énonciatif <Q-R> maximal : *이하 略字 M.D.E.M.로 표기)'은 따라서 *뒤 그림 : "존대의 조직('순수한 의문-대답'과 '존대적 의문-대답')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中央에다 1Q(근원), 2Q(동형화) 및 R(피동형화)을 배치하고, 그 각각의 上部에다 (그 각각을 '근원'으로 잡은) '동형화(변형)'와 '피동형화(생성)'를, 下部에다 (上部의 '피동형화'를 '근원'으로 잡은) '동형화(변형)'와 '피동형화(생성)'를 각각 '동형화(변형)'의 度를 표시하여 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Q(의문)-R(대답)', 즉 '너(Tu)-나(Je)'의 '동형적으로 최대로 팽창 조직'이다.

4°) '기욤'의 心理·精神力學論은 '근원적-형태적 力學性 cinétisme'을 주장하면서, 사실상으로는 "(物理적)心理性 제일주의 primat de psychisme"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기호론 sémiologie'을 "표현적 充足性 suffisance expressive"이란 이름으로 그에 종속시키고, "바라보는 개념 idée regardante"과 "결과적 개념 idée résultante"의 "일치 accord" 또는 "과거(α)-미래(ω)-현재(α/ω)", 또는 "단일위치 position-합성위치 composition"를 각각 후자에 우선권을 두고 연구하였다.1) 이로부터 "그것의 分析의

1) 이들은 모두 '형태'와 '의미' 사이의 '일치(=비 관용구)'라는 '기욤'식 '결합적' 관점을 반영한다. 그것은 이 일치는 언제나 物理적, 의미적, 可視적 테두리에 머물거나 - (여기서 心理性的 優位에 대한 '記号論'의 '표현적 充足性' 즉 恣意性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 , '구체적 문장의 테두리에 머물거나' - 여기서 '바라보는 개념'(개연성, 확실성, 가능성 : il est probable, certain, possible)/'결과적 개념'(*위 "개념"의 종속문 : "그가 올 것이" qu' il viendra, vienne)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 , 혹은 또 구체적 '현재'의 테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현재'(="단일 위치"에서의 '분리 장치')를 수평선상의 中央에, 그 左/右에 '과거/미래'를 배치하고, 다시 이 '현재'를 '과거/미래'와 함께 上(=상위적 結合 incidence)/下(=하위적 結合 décadence)로 나누어 그 '현재'는 '복합위치'에서의 '분리장치'가 되는 佛語 直說法의 표기가 나오게 된다 - (Guillaume 1971,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p. 83, p. 105, p. 144, pp 195~196 등 참조). 즉(p.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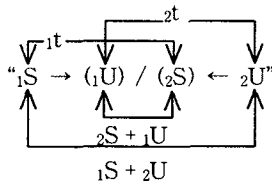
이 '결합적' 그림은 *뒤 p. 5의 "대각선 그림" 중 'S → U'식 그림과 연관지어 "橫대각선"으로 표기될 수 있다. (*주의 : '단일위치/복합위치'는 '橫대각선'의 경우에는 그 그림의 '上部/下部'에, '正대각선'의 경우에는 '동일성(≡/=)/비동일성(≠/≠)'에 대응된다 ; " α/ω "는 '결합적'인 경우에는 "현재 <1나, 1S> 2현재 <2나, 2S>/과거 <1너, 1U> 미래 <2너, 2U>에, '동형적'인 경우에는 그 순서가 " ω/α "로 바뀌어서 과거 "<1너, 1U>, 미래 <2너, 2U>/1현재 <1나, 1S>, 2현재 <2나, 2S>"에 해당된다).

(이들 '결합적 비 관용구'의 그림들은 모두 '특수→일반' 또는 "나→너"라는 짝의 순환에 대

어려움” 또는 “그 크기의 비 동일성 *inégalité de sa largeur*”이 由來된다.²⁾ 다시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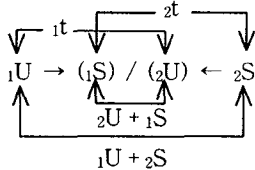
한 (自我<나>·어휘 중심적) ‘기욤’식 파악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짝의 각 項은 “나”(= $_1$ 나 및 $_2$ 나)라는 可視적·구체적 동일 實在에 주어진 ‘구체적 명칭(이름)’에 지나지 않는 ‘크립케’식 《이름→指稱體》라는 조직과 흡사한 ‘짝의 조직’이다(S. A. Kripke 1972/1996,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佛譯版 1982, *La Logique des noms propres*, Les Éd. de Minuit, Paris ; 韓譯版 1986, 「이름과 필연」, 서광사 참조).

즉 :



이 그림은 그것을 버리고 “일반→특수” 또는 “너→나”라는 짝의 순환에 대한 ‘근원적·동형적(너 <의문> 중심적)’ 파악을 나타내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때 그 짝의 각 項은 ‘理論’으로서의 ‘의문-대답’에 대응하는 ‘言語’로서의 ‘문법표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데리다’식 《筆跡 écriture》과 같다고 할 수 있다(J. Derrida 1967, *De La Grammat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英譯版 1976, *Of Grammatolog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韓譯版 1997,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참조).

즉 :



이로부터 (너 <의문> 중심적) 근원·동형적 조직이란 결국 ‘관용구’로서 취해진 ‘존대-화법(=의문-대답)의 조직’, 즉 다시 말하면 (‘의문-대답’과 ‘존대’가 ‘융합’되어서 그대로 동사와 ‘결합’되는 비분석적이고 결합적인) ‘비 관용구적’ 조직으로부터(즉 그 조직을 버림으로써) 재구성된 조직에 다름 아니라고 결론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비 관용구적 조직을, ‘먼저’=순수 의문-대답(존대 霧)과 ‘나중’=존대적 의문-대답이라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동형적 시간’으로 분석되는 관용구적 조직으로 환원시킴을 말하며, 또 한걸음 더 나가서 예컨대 ‘性-화법’이라는 조직을 ‘존대-화법’조직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볼 때, 性은 존대와 마찬가지로 인간(또는 사물)과 관계가 되지만 그대로 근원·동형적(너 <의문>중심적)조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유는 ‘性’은 의문-대답에 없어서 안되는 요소가 아니고 차라리 ‘동사적 인칭’으로서의 ‘格’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합적 비관용구적 존대-화법 조직과 함께 ‘통일화된 존대-화법 조직으로’ 즉 명확히 구분되는 두 동형적 시간으로 분석되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즉 : ‘이론(일반 <인칭>음운론) → 일반형태론 → 내부 통사론 → 외부 통사론’.

- 2) 이 “어려움”은 “근원·동형적 관용구”로서의 ‘너 <의문>중심적 유형의 “U→S” 또는 “너→나”의 순환(적 짝)과 구별되는 결합적 비 관용구’로서의 自我<나>-어휘-중심적 유형의 “S→U” 또는 “나→너”의 순환(적 짝)이 곧 ‘기욤’식 파악임을 이해하기에 이르지 못한 데

서 心理·精神力學論적 분석의 원리는 ‘어휘·의미적 제한’속에, 즉 ‘自我(나) 중심’

기인한다(*위 註 1의 두 그림 참조).

이들 두 유형의 그림들의 차이를 들어내기 위하여 우선 ‘기움’식 (수평/수직적) 그림을 두 유형의 결합적 그림(正 대각선과 橫 대각선 그림)과 나란히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위 註 1/*아래 p. 7 참조 ; *주의 : 각각의 그림 “1/2”는 ‘동형적임을 주장하는 그림’/‘사실상 결합적 그림’에 해당한다. 이것이 곧 ‘기움’식 ‘심리·정신역학론’의 특징이다) :

<기움식 그림>

<결합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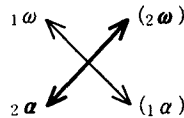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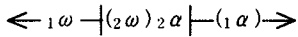
단일적 위치

正 대각선

橫 대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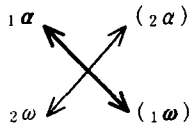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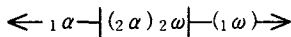
단일적 위치

1)



$$"1\omega \rightarrow (1\alpha) / (2\omega) \leftarrow 2\alph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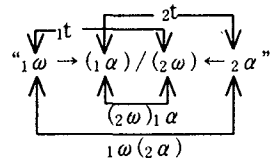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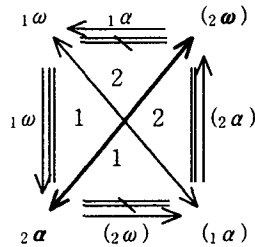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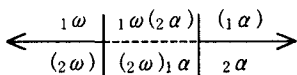


$$"1\alpha \rightarrow (1\omega) / (2\alpha) \leftarrow 2\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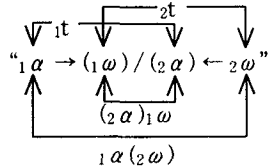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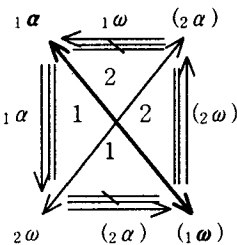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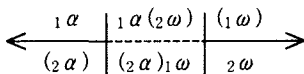
복합적 위치

복합적 위치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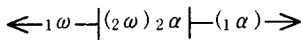


이들 결합적 그림으로부터 (즉 이들 그림을 버리고) 동형적 그림이 재구될 수 있다.

또는 ‘動詞중심’의 테두리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印歐語를 다룬 ‘소쉬르’ 이래 오늘날 까지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³⁾ 위에서 사용한 우리 식 그림으로 이것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주의 : “g” = 근원; “t” = 변형 또는 동형화; “e” = 생성 또는

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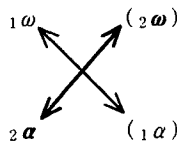
재구된 단일적
위치의 그림



〈동형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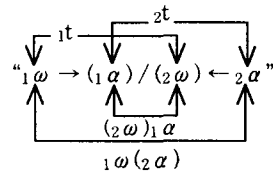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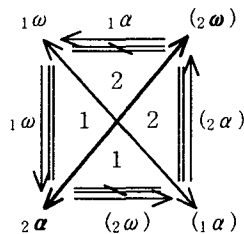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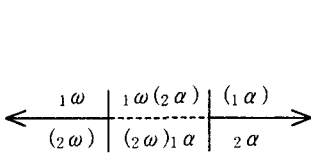
正 대각선

橫 대각선



“1ω → (1α) / (2ω) ← 2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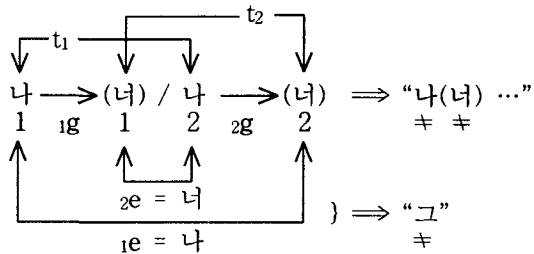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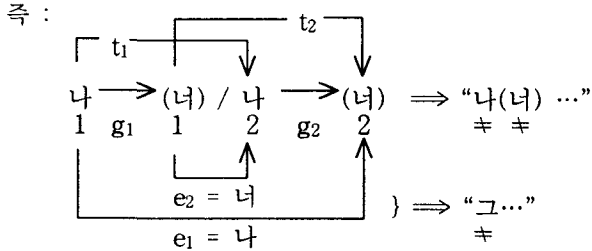
재구된 복합적
위치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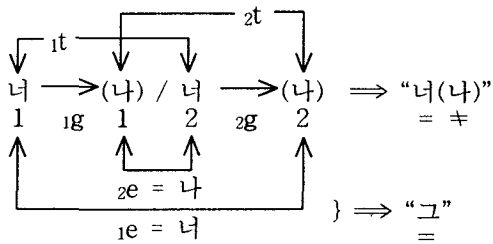
이로부터, 自我<나>, 어휘중심 유형의 순환(적 짝) 즉 “S → U,” “나 → 너,” “α → ω”의 한 項 : “S, 나, α”는 다른 項 : “나, 너, ω”와 마찬가지로 (可視적, 비분석적) 구체적 實在로서의 ‘비 동일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 따라서 ‘동형’과 ‘결합’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두 項 : α와 ω의 크기가 왜 다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순환론으로 빠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 졌다(R. Valin, 1966, “D’une difficulté inherente à l’analyse du présent en français” in *Mélanges Gardette*, Strasbourg, Klincksiek, pp. 485-493 ; R. Martin, 1980, “psychomécanique et formalisation de la théorie linguistique” in *Langag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Presses de L’Université Laval-Québec, P. 530 등 참조).

3) 예컨대 Kuno,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in *Linguistic Inquiry (Volume III, Number 2) Spring*, pp. 161~195 등 참조 : 여기서 그는 자기 모국어인 日語를 취급하면서 ‘심층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 : ‘심리동사’(sentir 느끼다, dégouter 싫다, 등) 또는 ‘수행동사’(promettre 약속하다, dire, 말하다)를 포함하는 “Il déplore qu’il ne puisse venir 그는 자기가 못 오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 “Il a dit qu’il a été malade 그는 자기가 아팠다고 말했다”와 같은 문장 즉 : “主節적 統合 + 從屬적 統合(= que 統合)”의 ‘共指示적 主語 代名詞’에다 ‘自我 중심적 나’를 설정한다 : *위 예들은 N. Ruwet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e du français*, Éd. du Seuil, Paris, p. 179 등/J-C. Milner 1978, *De la syntaxe à l’interprétation*, Éd. du Seuil, p. 364 등에서 취했음.

피동형화; 각 기호의 右 및 左의 숫자표시 1/2, 화살표시(→→)/(→←), 비동일성/동일성(≠/=) 및 反復/非反復(…/·)은 '非力學/力學'의 구분 표시임).



위 두 그림에서 같은 “自我(나)-, 어휘-중심”의 파악이 서로 다르게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 둘은 모두 *아래의 ‘근원적·동형적(너-중심적)그림’에 비해서 ‘結合적 incidenciel’이고 ‘恣意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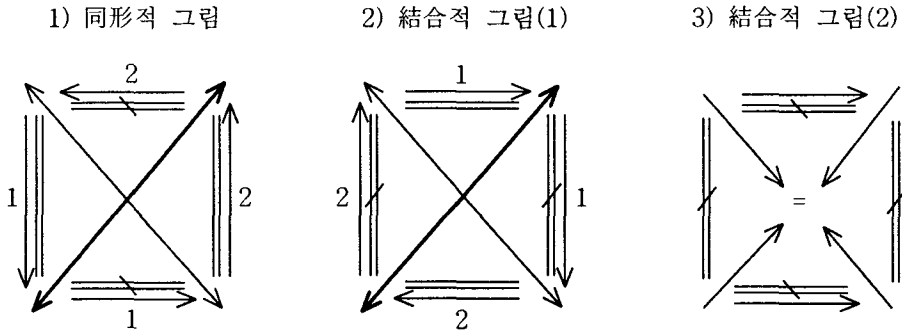


이들 그림(즉 橫對角線 그림)을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正對角線 그림’ 또는 그에 대응하는 ‘나무그림’으로 代置시켜서 알기 쉽게 표시하면,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파악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4)

4) 이 점에 관해서는 M. Launay, 1976, “A propos du mot et de la phrase : Réflexions sur les rapports entre sémantique générative et grammaire systématique”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XI V.1*, Strasbourg, pp. 327~370 참조 : 여기서는 ‘心理·精神力學論’과 ‘變形·生成文法’의 비교가 그들 둘의 참된 성격을 지적하지 않은 채 행하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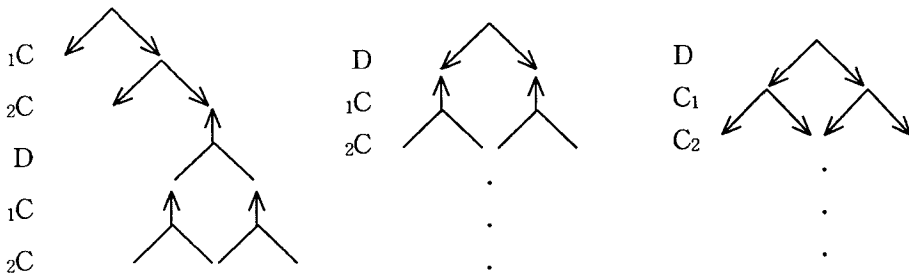
<대각선 표기>

(*주의 : *아래의 “結合적 그림(1)”은 *위(註 1)의 그림과 그 내용이 같음 ; “結合적 그림(2)”의 ‘結合의 순서’는恣意적이다) :



<나무그림 표기>⁵⁾

(*뒤 “同形적 理論의 그림/結合적 理論의 그림” 참조)



‘동형적 그림’에서 ‘근원’은 대각선의 左(↖)/右(↗)辺의 화살표시에, ‘동형화(변형)’는 ‘수평적 비동일성 표시(≠)’에, ‘피동형화(생성)’는 ‘수직적 동일성 표시(=)’에, 각각 해당한다. 이것은 공식으로 “(單一적)근원 $\bowtie \rightarrow$ (변형 \neq)/생성 $=$ (근원 $\bowtie \leftarrow$ 변형 $=$)”과

5) ‘결합’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둔 ‘나무그림 분석’에는 Chomsky와 Grünig/Clément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유형이 있는데(그것은 ‘동형적’ 관점에서 볼 때 可視적 구체 \Leftarrow 구체적 매듭 \Rightarrow 를 非可視적 추상 \Leftarrow 심층적 매듭 \Rightarrow 으로, 그와 逆으로 후자를 전자로 잡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결국 그것은 마찬가지로 관점이다 : ‘전자’는 매듭(X)과 그 구성요소(A \rightarrow B)를 ‘직접성분 분석적’으로 분석한다.

즉 : $\begin{matrix} & X & \\ & \swarrow \searrow & \\ A & & B \end{matrix}$: ‘후자’는 ‘기능적으로’ 분석한다. 즉 : $A = B$; 매듭(=X)이 ‘사실상’ 구체를 추상(=심층)으로 취한 것인 이상,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적 순서’를 설정하건, 혹은 또 단순히

같이 표기할 수 있고 ‘左에서 右로(→)’ 읽는다, *앞 pp. 1~2 : 1°)의 공식 참조). 이 공식을 그와 逆方向으로 ‘右에서 左로(←)’ 읽으면 *위 공식의 ‘구체화’ 단계가 된다. 즉 ‘생성 II’은 ‘변형’으로 ‘(변형 ≡)’은 ‘생성’이 된다. ‘첫째의 공식’이 ‘理論(너-音韻論)’ 단계라면 ‘둘째의 공식’은 그것의 ‘동형화(변형)단계(= 일반형태론 단계)’이다. 따라서 ‘구체화’ 단계로서의 ‘둘째 공식’에 따라 ‘동일성표시 II’를 ‘동형화(변형)(${}_1U/{}_2U$)’로, ‘비동일성 표시 ≡’를 ‘피동형화(생성)(${}_1S/{}_2S$)’로 잡으면, *위의 세 그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별 표시할 수 있다.

즉 : 1) “ ${}_1U \rightarrow ({}_1S)/({}_2U) \leftarrow {}_2S$ ”; 2) “ ${}_1S \rightarrow ({}_1U)/({}_2S) \leftarrow {}_2U$ ”; 3) “ $S_1 \rightarrow (U_1)/S_2 \rightarrow (U_2)$ ”

따라서, ‘근원적·동형적 공식’의 ‘순서’는 ‘일반(U)’에서 ‘특수(S)’로 나아가는 순서이고, 반대로 ‘結合적 나(自我 ego) 중심의 두 개의 공식의 순서는 그 逆의 순서, 즉 ‘특수(S)에서 일반(U)’으로의 순서이다(기욤식 설명, 즉 “일반(U_1)에서 특수(S_1)로, 특수(S_2)에서 일반(U_2)으로”는 결국 “특수에서 일반으로”와 같은 내용을 그와 같이 표현 내지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⁶⁾ 이로부터 ‘力學적·동형적 그림’은 ‘자연스러운 力學性’을 지닌 반면 ‘결합적 그림’은 ‘恣意性’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다음 공식들을 (心理·精神力學論의 品詞理論에 사실상 해당하는 ‘기욤’의 공식 : “ $U_1 \rightarrow ({}_1S_2) \rightarrow U_2$ ”를 수정하여) ‘理論·근원(너-음운론)’의 ‘동형화(변형)’로서의 ‘일반형태론의 조직’(拙稿 : 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1996/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57-364등 참조)을 표기하는데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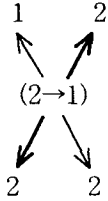
즉 : (1) “ ${}_1U-({}_1\emptyset) \rightarrow ({}_2S \leftarrow {}_1S)-({}_2\emptyset) \rightarrow {}_2U$ ”; (2) “ ${}_2U-({}_2\emptyset) \rightarrow ({}_1S \rightarrow {}_2S)-({}_1\emptyset) \rightarrow {}_1U$ ”;
(3) “ ${}_1U-({}_11) \rightarrow ({}_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_21) \rightarrow {}_2U$ ”.

이들 공식은 각각의 공식의 左/右의 中央에다 ‘동형화의 度’ (“ $\langle \emptyset \rangle$, $\langle {}_2\emptyset \rangle$, $\langle {}_11 \rangle$, $\langle {}_21 \rangle$ ”)를 표시한, 아래와 같은(*앞 “1°)/“2°”) 참조) ‘대각선’에 대응되는 공식이다(대각선의 네 모서리의 숫자 “1/2”는 “ ${}_1U/{}_2U$ ”에, 중앙의 (괄호)안의 숫자는 “ ${}_1S/{}_2S$ ”에, 그리고 左/右의 ‘굵고/가늘’ 線의 구분 표기는 ‘변형의 度’에 해당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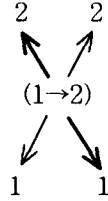
그 매듭의 ‘出現’으로 보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매듭과 非매듭 사이의 恣意적 연결을 나타낼 뿐이다(B-N. Grünig, 1981/1982, *Structure Sous-Jacente : Essais sur les Fondements Théoriques*, Honoré Champion, Paris, p. 3 등/“Démontrer des contraintes?” in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Théorie et méthodologie)*, Université Paris VIII, pp. 113~126 ; D. Clément, 1982, *Élaboration d'une Syntaxe de l'Allemand*, Verlag Peter Lang, p. 24 등 참조 ; 여기서 기능적 관점이란 음운을 “동시에 실현되는 유효·변별 자질의 총체”라고 정의하는 ‘마르띠네’식 음운의 정의와 비교될 수 있다. : A. Martinet, 1956,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ille*, Genève/ Paris, p. 40 등 참조).

6) *위 (p. 7) 세 그림의 “근원·동형적(너-중심적)"/“自我(나)-, 어휘-중심적” 구분을 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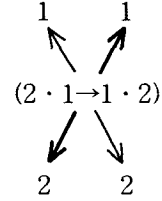
1°) ${}_1Q = {}_1$ 근원



2°) ${}_2Q = {}_2$ 근원



3°) $R = {}_3$ 근원



‘心理·精神力學論의 品詞論의 (結合적)理論’과 그에 대응하는 ‘同形理論’은 “C(연속)”/“D(불연속)” 표시를 사용해서 역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즉 :

내 부		외 부
내 부	외 부	
1° 2°	D	
1C 2C		

*주의 : ‘근원적 동형 이론’의 ‘내부’는 ‘문법적동형화-피동형화(Q-R)로서의 ‘근원적 관용구’ : ‘ ${}_1C-{}_2C$ ’로부터 시작한다. 그와 반대로 ‘결합이론’의 ‘내부’(=D)는 ‘實辭적非관용구(=R)’이다.

외 부	
내 부	외 부
1C	2C

同形이론

내부 = 외부		
내 부	외 부	
D	1°	2°
	1C	2C

結合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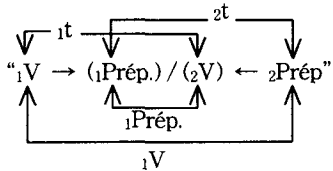
따라서 ‘일반형태론’(M.G. = Morphologie Générale)은 ‘언어활동의 지시적 조직’과 병행되게, 그 ‘中央’에다 ‘첫째로’ : *앞 “1°” 공식 = “ $Q(Q)/(Q)Q$ ”에 해당하는 *위 “(1)” 유형, 즉 ‘屈折적 同形적 1차·2차적 分節’, ‘둘째로’ : *앞 “2°” = “ $Q(Q)/(Q)Q$ ”에 해당하는 *위 “(2)” 유형, 즉 ‘동사적 내부 3차적 분절’, 끝으로 ‘셋째로’ : *앞 “3°” = “ $Q(R)/(Q)R$ ”에 해당하는 *위 “(3)” 유형, 즉 “대명사적 외부 3차적 분절”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언어활동(의문-대답)의 최대의 지시적(동형화·거부적) 조직’ (M.D.E.M.)의 경우에서와 같이 ‘同形적으로 최대’가 되도록 하여 만들어진다. 그 차이는 “M.D.E.M.”의 경우에 있어서는 ‘中央’에다 ‘근원적·연속적 근원 理論’으로서의 “1°” = ${}_1Q-{}_2Q$ 와 “2°” = R이 각각, 그에 대응되는 파생적·불연속적 言語로서의 “3°” = R을 수반함에 반하여, “M.G.”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 단계로서의 “M.D.E.M.” 단계에 비하여 ‘구체 단계’인 “말의 寶庫”(trésor de la langue : F. de Saussure 199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30 참조)로서의 이 단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기된다. 즉 ‘中央’에다 ‘비근원적·再派生적 理論’으로서의 “1°), 2°), 3°)를 배치하고 그 각각이 ‘재 파생적·재 불연속 언어’를 수반한다. (*뒤 pp. 15~20의 “존대의 조직”의 “순수 의문-대답” 및 “존대적 의문-대답”을 합친 전체 그림 참조/*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 1996/1997. pp. 357-364 등 참조). 그리고 이 ‘조직’은 ‘기욤’식 ‘心理·精神力學論의 結合적 品詞論’에 代置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하여 ‘內部統辭論’을 거쳐 종착점으로서의 ‘外部統辭論’에 도달한다.

6°) ‘同形理論’과 비교하여 설명한 ‘結合理論’은 1: (인간·사물에 관계되는) 性-존대와 (文內部적) 前置詞-格助詞(後置詞)와 같이 佛語 및 韓語에서 (어휘요소 前置·後置되는) 두 유형의 문법표지를 따로 따로, 그리고 위와 같은 순서(“1” 먼저, “2” 나중의 순서)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았다. ‘근원·동형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근원적·동형적(‘너’ Q 중심적) 관용구’와 ‘결합적(自我 ‘나’ 중심적) 비 관용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 “4°)의 대각선의 비교 참조) 두 문법요소들을 둘째의 ‘결합적’의 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첫째의 (근원·동형적) 의미로 취하는데 있다.7)

7) 예컨대 전치사를 “起因→작용→결과”의 순으로 동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다룰 때, (*위에서 “특수→일반”이라는 짝의 ‘自我<나>- 어휘- 중심적’ 순환을 나타내는 “ ${}_1S \rightarrow ({}_1U)/({}_2S) \leftarrow {}_2U$ ”로 파악된) ‘기욤’ 방식으로 표기한다면, ‘橫대각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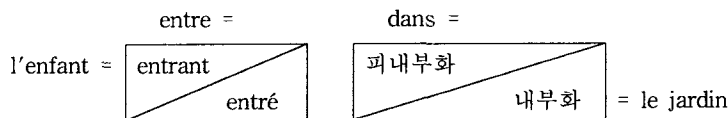
즉 :



예 :

- a) “Pierre observe” ‘베에르’는 본다
- b) “Pierre observe Paul” ‘베에르’는 ‘뿔’을 본다
- c) “Pierre entre dans le jardin” ‘베에르’는 정원에 들어간다

*주의 : “ ${}_1V/{}_2V$ 1動/2動” = 자동적(예 “a”)/타동적(예 “b”)통합에서의 ‘起因의 능동성/결과 수동성’ ; “ ${}_1Prép/{}_2Prép$ 1전치사/2전치사” = ‘주어-동사’(“a”) 또는 ‘주어-동사-목적어’(“b”)통합에서의 ‘주어/목적어’ 및 ‘간접타동’(“c”)이라 불리우는 통합에서의 전치사의 ‘起因(능동)/결과(수동)’ : 이것은 다음과 같은 ‘파네’의 그림으로 표기된다(G. Moignet, 1974, “Sur la «transitivité indirecte en français” in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XII. 1)*, Strasbourg, p. 2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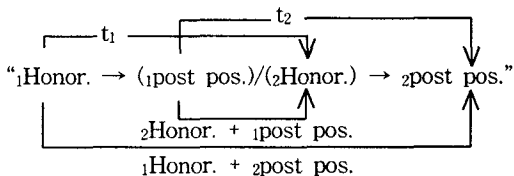


(또 G. Moignet, 1973, “Incidence verbale et transitivité” in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XI.1)*, Strasbourg, pp. 363~379 참조).

7°) 위와 같은 취지에서 “존대의 조직”(*뒤 그림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냐?(의문) Est- ce-que ... ?”/“-어! (대답) Cest que ... ”⁸⁾과 같은 말트막은 “너는 X가 먹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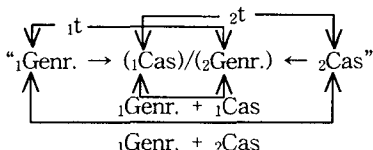
혹은 또 두 문법요소(존대 및 후치사 = 助詞)를 이와 같은 순서로 따로 따로 다루며 전자(존대)를 ‘주체-/대상-/상대-존대’로 분석하고 후자(助詞)를 거기에 종속시키는 예를 들 수 있다(*주의 : 이것은 곧 ‘狀況意味적 相對尊待’의 테두리 안에서 ‘文內部적 主体 = 主語 - 대상 = 客語’를 분석하는 等方向적 分析이 된다 : 許雄, 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pp. 8~122.).

즉 :



*주의 : “1Honor./2Honor. 1존대/2존대” = ‘동사적 상대존대 <-이니>/ 동사적 주체 존대<-시>’ ; “1post pos./2post pos. 1助詞/2助詞” = ‘조사적 주체존대 <주어로서의 ‘나+이/가 = 비 겸손의 나’, ‘-님 = 주체 존대’>/ ‘조사적 객어 존대 <존대의 직접/간접 목적어로서의 ‘저+이/가 = 겸손의 나’, ‘-님+께, 을 = 객어존대’>’ ; “1Honor.+2post pos./2Honor.+1post pos. 1존대+2조사/2존대+1조사” = ‘겸손의 나 <주어> 文/비 겸손의 나<주어>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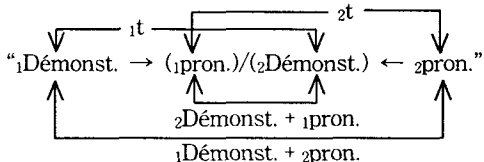
혹은 또 ‘格’을 종속시키는 ‘性’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주의 : “1Genr./2Genr.” = ‘무생물+중성/생물+남-여성’ ;
 “1Cas/2Cas” = ‘주어/목적어’ ;
 “1Genr.+2Cas/2Genr.+1Cas” = ‘무생물+목적어/생물+주어’;

*(A Joly, 1975, “Toward a theory of gender in English” in *Studies in English Grammar*, Universeté de Lille III, pp. 229~287).

또 지시대명사(ce)와 그에 종속되는 대명사(celu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주의 : “1Démonst./2Démonst.” = ‘지시대명사 <ce>/관계대명사<qu->’ ; “1pron./2pron.” = ‘대명사<celui>/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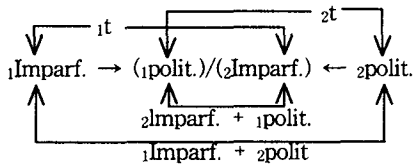
“1Démonst. + 2pron./2Démonst. + 1pron.” = ‘지시대명사 <ce> + 實詞/대명사<celui> + 관계대명사 <qu->’.

*(L. Guenette 1995, *Le démonstratif en français*, Éd. Honoré Champion, Paris, p. 42 등 참조).
 끝으로 ‘반과거’에 종속된 ‘존대’의 예가 있다.

든야?” ; “그는, 내가, X를 먹고 싶어하든야?” “Tu t', l', m' as vu aimer, aimant, manger X?” / “나는 X가 먹고 싶들야” ; “그는, 너는, X를 먹고 싶어하들야, ~먹고 있들야”, “je m' l' t'ai vu aimer, aimant manger X”, 또는 “너는, 그는, 나는, X냐? 그분 X냐?”⁹⁾ “Tu t' l', m' as vu être, étant x?”와 같이 韓/佛語에서 모두 각각 “굴절적 너 Tu”, “동사적 나 je” 그리고 “대명사적 나-너 je-tu”로 분석이 되는 ‘同形적 慣用句’가 된다.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명사적 존재의 동형 조직(의문-대답)”(*뒤 그림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나 tu-je,”/“-∅-∅ suis-es”(굴절적 의문), “저-님 je-vous”/“-시-버니 êtes-s”(동사적 대답), “너-나 tu-je” / “∅-∅ suis-es”(1대명사적 의문), “저-님 je-vous” / “-시-버니 êtes-s”(2대명사적 대답)은 韓語와 그에 대응되는 佛語에서 모두 ‘근원적·同形적 慣用句’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관용구 “-아!~-어!”/“C'est que(대답)”만이 있고 그와 함께 관용구 “너(나)(먹게)해!, (너)나 먹게(해!), 너(나)(X-먹게) 조용히 해!, (너)나 X 먹게(조용히 해!), -님(그분/저)(잡수시/먹-게)하십

죽 :



- 1) “je venais (étais venu) dire à Monsieur”/
선생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 2) “je viens (suis venu) dire à Monsieur”/
선생님한테 말하러 왔어.

*주의 : “1Imparf./2Imparf. 1반과거/2반과거” = ‘동사적 상대존대 <venais, était venu>/동사적 주체존대 <viens, suis venu >’ ;

“1polit./2polit. 1존대/2존대” = ‘전치사적 주체존대 <겸손의 je 나>/전치사적 객어존대 <비겸손의 je 나>’ ;

*(Guillaume, 1971, “위 인용본”, pp. 132~133 등 참조).

8) 倒置法(“est-ce-que?/c’est que”; “Pierre, il viendra/Pierre viendra-t-il?”)의 ‘결합적’ 분석에 관하여는 A. Joly, 1983, “Ambigüité et paraphrase à propos de certains types d’inversion en français” in *Modèles linguistiques (tome V, fasc. 2)*,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pp. 135~17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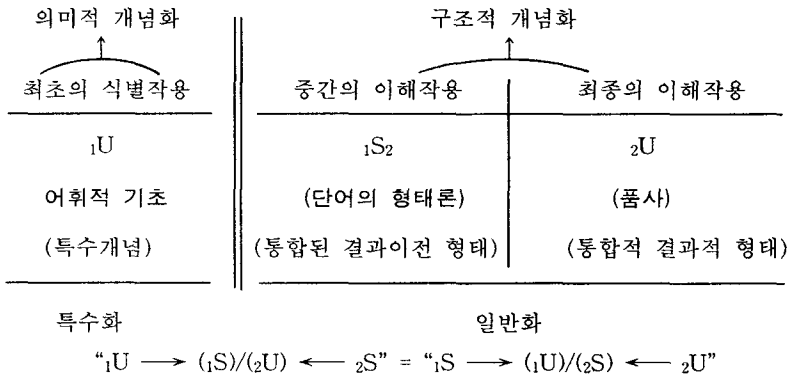
9) “He has realized...” ⇒ 1) realized | 2) has |와 같이 조동사 (have)를 ‘작용(= realized)’의 ‘결과(= has)’로 ‘결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대하여는 W. H. Hirtle 1975, *Time, Aspect and the Verb*,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Québec), p. 37 등 참조. 동형적 (너 <의문> 중심적) 분석의 관점에서는 “時制-相-法”과 같은 自我(나)-, 어휘- 중심의 분석을 탈피하여, 그것(조동사 have + pp.)을 하나의 (人稱的) 慣用句 즉 : “Tu t', l', m'as vu?” (의문 중지어미 ‘-야?’)/“Je m', l', t' ai vu” (대답 중지어미 ‘-어!’)로 보고 각각 (근원·동형적) 존재(être <비 존재> ∅/étant <존재> -시)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주의 : “avoir”를 “1avoir/2avoir”로 나누어 ‘기호’로서 사용한다에 대하여는 *뒤 p. 16의 *주의 項 참조).

시오!, (-님)그분/저 X 잡수시/먹-게(하십시오), -님(그분 X 잡수시게) 조용히 하십시오!
 오!, (-님) 그분 X-잡수시게(조용히 하십시오)” “je, t', m', l'ai vu faire, faisant, manger, mangeant, calme”를 갖는 “동사적 존재의 동형적 조직(= 명령)”(*뒤 그림 참조)도 위와 같이 취급된다.

8°) 이제 남은 일은 이미 언급되긴 하였으나 ‘대명사적(= 의문-대답)-동사적(= 명령) 결합적 조직’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다. 다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반복하면, 그 위치는 ‘동형적 조직’의 ‘피거부’의 자리에 “연결(먼저)-종결(나중)”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동형적으로 거부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 조직이 再構成을 거쳐서 ‘동형적 조직’에 併合되어야 함을 뜻한다.¹⁰⁾

적극적 관점에서 볼 때 ‘기욤식 心理·精神力學論’은 처음부터 아예 배척될 것이 아니라, ‘自我(나) 중심적 결합적 조직’을 ‘데리다식 筆跡 écriture¹¹⁾’으로서의 ‘(너-중심적) 力學·同形적 조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이고 非恣意的인 力學性’을 재구함에 있어 체계적 기초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10) ‘기욤식’ 결합적(어휘 중심적)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을 참조(A. Joly, 1975, “*위 인용본” p. 242 참조). 이것을 우리는 *위 p. 9에서 한 바와 같이 “ ${}_1U \rightarrow ({}_1S)/({}_2U) \leftarrow {}_2S$ ” = “ ${}_1S \rightarrow ({}_1U)/({}_2S) \leftarrow {}_2U$ ”와 같이 고쳐서 파악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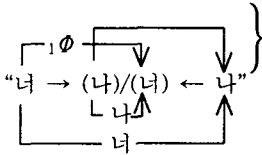


11) J. Derrida, 1967, *De la Grammatologie* 참조 : ‘소쉬르’식 노선에 따라 ‘筆跡 écriture’보다 ‘말 parole’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音韻 중심관을 비판한 뒤 그는 그와 ‘逆의 순서’를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그와 반대로 口頭言語가 이미 이 「筆跡」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p. 81).. “우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한다 : 《原始》, 《自然》등의 言語란 결코 존재한 일이 없으며, 그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筆跡」이었다고” (p. 82)/ M. Toussaint, 1983, *Contre l'Arbitraire du Signe*, Didier Érudition, Paris 참조 : 발생기원 이론으로서의 ‘데리다’의 筆跡理論에 토대를 두고 ‘기욤’의 物理·의미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음성·음운적) 記号論의 취급방법은 우리의 견해로는 역시 ‘기욤식 물리·의미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근원적/同形적) 존재의 조직 순수 의문-대답

*주의 : 아래 표기의 “너 → (나)/(너) ← 나”
표기는 “指示 → (被指)/(指) ← 被”표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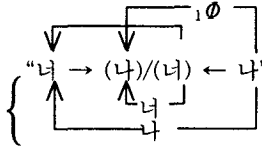
I. 理論 - 근원 \emptyset
일반형태론(I)/(II)-
同形化(= 변형) $1\emptyset$ 度



바로 *아래의 複合조직의 同形化(變형)로서의 “너 → (나) / ”너 → (그)”의

- 單一적 조직(*주의 : “너 / 나/그” 밑의 화살표시 :
- →/←의 표시방법은 이하 모두 같음).

外部1차 分節 -
同形化, \emptyset 度
일반형태론(III) -
被同形化(= 生成) $2\emptyset$ 度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일반형태론(I)/(2)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 바로 *앞 “理論단계”의 同形化 $1\emptyset$ 도로서의 “너 → (나) / ”너 → (그)”의 (單一적) 조직.
*예 : “flex. <u-nò-Q> → (verb. <je-na-R.>) / (flex. <tu-nò-Q> ← verb. <je-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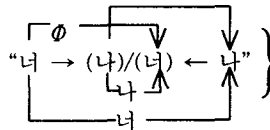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일반형태론(III) 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 그 자체가 “()”안에 바로 *뒤의 同形化($2\emptyset$) = (單一/複合적) 内部통사론(I)/(II) 및 被同形化= 同(III)을 內有하고 있는 同形化 $2\emptyset$ 도의 “너 → (나) / ”너 → (그)”의 複合적 조직.
*예 : “tu(je) → (<tu>il) / (ce= tu <que =toi>) ← (est= tu- présent) zes t= je- prés.” : nò(na) → (<nò> ki) / (nò <nin = quand à>) ← (nin- tu- prés) ya? = particule de Q. = je- prés.

*주의 : 각 分節을 연결하는 左右의 수직선은 내부/외부적 同形운동을 가리킴.

理論-근원 \emptyset 일반 <인칭>
음운론 = “너” - 음운론

内部 1차 分節-同形 (= 근원) \emptyset 度

*바로 *뒤 複合적(= 변형적) “너 → (그)”적 “나” 음운론 단계의 同形化로서의 “너 → (나)”적 單一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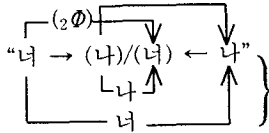


*주의 : { 표시는 각각의 그림이 나타내는 단계의 位置를 가리킴.

*예 : *뒤(부록) “근원적 인칭음운론단계”의 “근원” = “너 → (나)”단계 : 그 자체가 “()”안에 被同形化(= 被거부) = “1生2”를 內有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안에 바로 *뒤의 “나”음운론과 바로 *위 左의 “일반형태론 $1\emptyset$ ” = *별지 “單一적 일반형태론(I)/(II)단계”를 內有하고 있는 변형 \emptyset 도의 “너 → (나)”적 근원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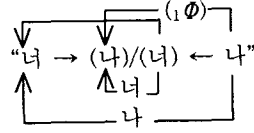
*예 : “tu → (je) / (<tu> je)”
“nò → (na) / (<nò> na)”

內部통사론(I)/(II) -
同形化(2∅)度



- *바로 위 單一적 同形化의 被同形化로서의 “너 → (나)”/“너 → (그)”의 複合적 조직.

內部통사론(III) -
被同形化(1∅)度



외부 1차
分節
被同形化
(1∅)度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內部통사론 (I)/(II)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주의 : “()”/“< >” = 同形の 순서 “1/2” ; Flex. : 屈折, Verb. = 動詞, Pronom. = 代名詞 人稱.

$\begin{matrix} & & \downarrow & & \downarrow & & \downarrow \\ \text{“}_1\text{Est} \rightarrow & (\text{ce}) & / & (\text{2Est}) \leftarrow & \text{que”} \\ \text{ce(Etre)} & \langle \text{ce} \rangle \text{E} & & \text{que} \langle \text{E} \rangle & (\text{que})\text{E} \\ \text{Q(R)} & \langle \text{Q} \rangle \text{R} & & \text{Q} \langle \text{R} \rangle & (\text{Q})\text{R} \\ \text{Tu(Je)} & \langle \text{Tu} \rangle \text{Je} & & \text{Tu} \langle \text{Je} \rangle & (\text{Tu})\text{Je} \end{matrix}$				
\wedge				
{	tu	tu	tu	je
	t'	t'	t'	m'
	(aimer)	aimer	<aimer>	(aimer)
as	as	as	ai	
vu	vu	vu	vu	
\vee				
ya?(joh-ún)	<à>joh-til-	i<joh-tin>-	i(joh til)	
Flex.	Verb.	Pronom.	Verb.	

$\begin{matrix} & & \downarrow & & \downarrow & & \downarrow \\ \text{“}_1\text{Est} \rightarrow & (\text{ce}) & / & (\text{2Est}) \leftarrow & \text{que”} \\ \text{ce(E)} & \langle \text{ce} \rangle \text{E} & & \text{que} \langle \text{E} \rangle & (\text{que})\text{E} \\ \text{Q(R)} & \langle \text{Q} \rangle \text{R} & & \text{Q} \langle \text{R} \rangle & (\text{Q})\text{R} \\ \text{Tu(Je)} & \langle \text{Tu} \rangle \text{Je} & & \text{Tu} \langle \text{Je} \rangle & (\text{Tu})\text{Je} \end{matrix}$			
\wedge			
{	tu	tu	je
	t'	l'	t'
	(aimer manger)	connaître X	<être calme> (faire X)
as	as	as	ai
vu	vu	vu	vu
\vee			
i-ko	<l-ko>	-hi-ha-	ha
(mòk-sip)	al-it	<joyong>	(X)
Flex.	Verb.	Pronom.	Verb.

nò-nin X-i/ka joh-tòn-ya? → na-nin ... tò-la
 “Est-ce que tu t’as vu aimer X?” →
 “C’est que je m’ai vu ...”
 kī-nin khi-ka khi-tòn-ya? → khī-tòl-a
 “Est-ce que tu l’as vu être grand?” →
 “C’est que, je l’ai vu ...”
 kī-nin kikos-il mòk-ko ittòn(nin) = ya?
 ... ittòl-a →
 “Est-ce que tu l’as vu connaître X?” →
 “C’est que je l’ai vu ...”

*주의 : “être/étant”;
 “aimer/aimant”,
 등은 근원·동형적
 의미에서의 “비존대/
 존대”에 해당함(*위
 註 9 참조).

nò-nin X-i/ka mòk-ko siptòn-ya? →
 na-nin ... tò-la
 “Est-ce que tu t’as vu aimer manger X?”
 → “C’est que je m’ai vu ...”
 kī-nin X-lil mòk-ko siphò-ha tòl-ya?
 → ... haròl-a
 “Est-ce que tu l’as vu aimer manger X?”
 → “C’est que, je l’ai vu ...”
 nò-nin X lil ha-ko it-nya?
 → na-nin ... iss-ò
 “Est-ce que tu t’as vu faire X?” →
 “C’est que je m’ai vu ...”
 kī-nin X-lil hatò-nya? → ... hatò-la
 “Est-ce que tu l’as vu faire X?”
 → “C’est que, je l’ai vu ...”
 kī-nin joyong-hatò-nya? → ... hatò-la.
 “Est-ce que tu l’as vu être calme?”
 → “C’est que, je l’ai v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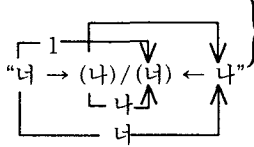
*주의 : *위 그림의 “tu t’, m’, l’ as vu/je m’, t’, l’ ai vu”에서의 조동사 “avoir”는, “₁Est→(ce)/₂(Est)←que” 또는 “ce(Etre) → <ce>Ê/que <Ê>←(que)Ê”에서의 “/” 左측의 記号표시로서의 “j’être”와 對比되는 “ce-que 또는 tu-je 동사(=代名動詞 . tu t’es vu/je me suis vu)”의 ₁記号표시로서의 “avoir”에 대응되고, “/” 右측의 ₂記号표시로서의 j’être와 對比되는 ₁-동사(=半과거)의 ₂記号표시로서의 ₂avoir에, 근원·同形적 의미에서 각각 대응된다.

*주의 : *뒤 그림 : “대명사적 존대의 조직”에도 *위와 같은 *주의.

*주의 . 俞승의 예는 *뒤 그림 . “동사적 존대의 조직” 참조.

II. 理論 - 同形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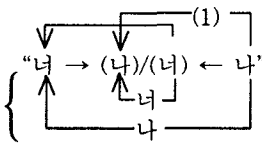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I) - 同形化 1度



*바로 *아래의 複合적 조
적의 同形化(변형)로서의
非존대적 “너 → (나)”/“너
→ (그)”의 單一적 조직.

外部 2차 分節 - 同形化(1)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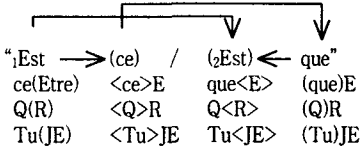
複合적 外部통사론(I) - 被同形化(1)度



*예: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非존대/(존대)”의 單一적 조직.

*예: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非존대/(존대)”의 複合적 조직.

“대명사적 비 존대/(동사적 존대)”



tu	tu	tu	je
t'	t'	l'	l'
(aimer)	aimer	<être>	(être)
as	as	as	ai
vu	vu	vu	vu

i-ka(joh) <i-ka>joh ya?<isi> òl(isi)

Flex. Verb. Pronom. Verb.

nò-nîn X-i-nyā? → ... X-i ya.

“Est-ce que tu t'as vu être X?”

→ “C'est que je m'ai v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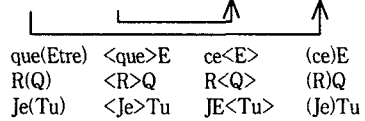
kī-nîn X-ī-n-ya? → ... -X-i-si-ta.

“Est-ce que tu l'as vu être X?”

→ “C'est que je l'ai vu ...”

(“대명사적 비 존대/

“1Est → (ce) / (2Est) ← 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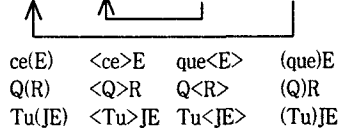
je(tu)	tu(je)	je(tu)	tu(je)
(manger<amant>)	amant(aimer)	(aimer X)	(aimer X)
t'	l'	m'(l')	t'(m')
ai(as)	as(ai)	ai(as)	as(ai)
vu	vu	vu	vu

-il -il joha ha-tin-i joh-til -i joh-tin
(mòk-til
<joh-a-ha-tin>)(-i joh-til) <-tin> (-til)

Flex. Verb. Pronom. Verb.

<동사적 존대>”)

“1Est → (ce) / (2Est) ← que”



ce(E)	<ce>E	que<E>	(que)E
Q(R)	<Q>R	Q<R>	(Q)R
Tu(JE)	<Tu>JE	Tu<JE>	(Tu)JE
tu(je)	je(tu)	tu(je)	je(tu)
l'	l'	l'	l'
(être<étant>X)	étant(être)X	être(étant)X	étant(être)X
as	ai(as)	as(ai)	ai(as)
vu	vu	vu	vu
-i	si	-isi	-sipni
(si)	(-i)	(-sipni)	(-i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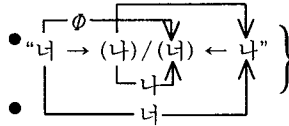
Flex. Verb. Pronom. Verb.

kī-nin X-lil mòk-tò-la(kī-pun ... l-sipni-ta)
 "C'est que je l'ai vu manger X
 (C'est que je l'ai vu être X)"
 kī ... X-lil joha-ha-tòla(kī ... X-i-si-ta)
 "C'est que je l'ai vu aimant X
 (C'est que je l'ai vu étant X)"
 na-nin X-i/ka joh-tòla(Na...X-i-ya)
 "C'est que je m'ai vu aimer X
 (C'est que je m'ai vu être X)"
 Nò...X-i/ka joh-tò-nya?(Na ... Joh-tò-la)
 "Est-ce que tu t'as vu aimer X?
 (C'est que je m'ai vu aimer X)"

理論 - 同形化(= 변형)
 "1°"도의 일반 <인칭>
 음운론 = "나" - 음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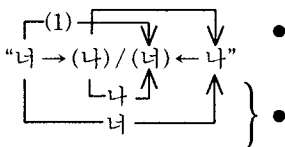
內部2차 分節
 - 同形(변형)
 1°度

*바로 *앞 "너"-음운
 론 단계의 被同形化
 로서의 "너→(그)"적
 2單一적 조직.



*예 : *뒤(부록) "근원적 인칭 음운론 단계"의
 "변형" = "너→(그)"단계 : 그 자체가 "()"
 안에 被同形化(= 1生2)를 內有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안에 同形化, 즉 바로
 *뒤의 "그"-음운론과 바로 *위 左의
 (單一적)外部통사론(I)을 內有하고 있
 는, *앞 "변형 0도"와는 逆方向의 "변
 형 1°도"의 변형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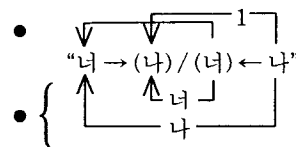
(單一적)外部통사론(II) -
 同形化(1)度



*예 : *뒤(부록)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複合적 外部통사론(II) -
 被同形化 1度

外部2차
 分節 -
 被同形化
 1度 ←



*예 : *뒤(부록)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